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시여

5월 24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은 더욱 높아졌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날로 양상되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주제79(1990)년 5월 24일 통일없는 사색과 탐구로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측면을 열어나갈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일 발상지》에서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 5개방침은 온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해방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들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개방침은 통일의 주체인 전체 조선민족의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민족의 통일념원과 정세발전의 추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이 방침은 조국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힌 획기적인

방침이었다. 여기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 5개방침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조국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섰다. 조국통일 5개방침은 그 현실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로 하여금 절박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1990년 5월 3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부원연합회의에서는 조국통일 5개방침이 온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확신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채택하였다.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민족대통일 전선형성의 결정적구실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북과 남, 해외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되게 되었다.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며 1990년대의 첫 해에 성과적으로 열린 범민족대회는 1948년에 있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 크게 새겨진 역사적화합이었다.

조국통일 5개방침이 제시된 그해 11월에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3자련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기구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의 조직을 완성하기 위한 회담이 열린것도 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 10월 북과 남을 오가며 겨레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킨 북남통일축주경기, 같은 시기에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12월에 있는 《90주년 통일전통음악회》 등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단합과 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뭉치게 한 의의깊은 사업들이었다.

정년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가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송정혁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대일결연하여 영적반대한다》

남조선에서 군사독재로 권력을 강압한 박정희회도는 심화되는 정치경제적위기에 벗어나보려고 외세의 옷자락에 더욱 매달렸다.

1964년에 들어와 외세의 막후지시에 따라 13년간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굴욕적 조건에서 각절지으려고 서두른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당시 군사파쇼도당은 《3월타결 4월조인 5월비준》각반에 따라 이범적적인 회담을 서둘러 결착지으려고 획책하였다.

외세의 부추김 밑에 민족의 존엄을 더럽히는 박정희군사파쇼도당의 매국행위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분열을 더뜨려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남조선의 《경향신문》(1964년 2월 4일)은 《우리 민족의 살길은 일본에 종살이구걸을 하는 길이 아니라 남북통일의 대로를 따라 전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일본과 굴욕적타결을 꾀하는 독재 《정권》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500여명은 《한일회담》반대성토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을사년(1905)에 《보

호조약》을 강요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갑진년(1964년)에 또 하나의 《보호조약》을 강요하려고 날뛰는 침략적외세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자본의 시녀가 되어 굴욕외교를 감행하는 박정희도당의 매국적외세를 날날이 고발하였다. 또한 《민족의 해방과 자립은 그를 위해서 투쟁하는 민족에게만 주어진 영광이며 이것만이 민족의 번영과 민족사에 전진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 엄숙한 민족자립을 위한 투쟁대렬을 과감스라이 전진시킬것이다. 전진하는 민족사는 우리를 정의의 그늘에 옹호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민족자주력량을 우리를 열렬히 성원할것이다.》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성토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대일결연외교반대》의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투쟁에 나섰다.

서울에서 나오는 투쟁의 불길은 로연의 불길처럼 대구, 부산, 광주 등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거세한 투쟁에 직면한 매국도당은 부득이 진행중이던 《한일농림부장회담》을 중지하고 예정하였던 《외교부장급정치회담》도 보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책동은 파탄되고말았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날 서울의 17개 대학과 지방의 2개 대학의 3만 2 800여명의 학생들은 1만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박살하라》고 웨치면서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넘어갔다. 하여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타락체제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사태는 4.19인민회의의 그날을 방불케 하였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42개 지역에서 53개의 대학과 193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 38만여명과 많은 시민들이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서면서 《우리의 궁극적대안은 민족적자립임을 다시 확인하고... 민족적주체성을 확립할 정신적자세를 확립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학생들의 거리를 지키는 《일본의 경제권내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저해하게 된다.》, 《민족분열을 조장하여 불신감을 조성하는 현혹을 조사차단하라!》, 《민족분열을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4.19정신으로 3천만이 뭉쳐보자. 단결없이 남북통일할수 없다.》는 열면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6.3봉기의 나날 고려대학교 1 000여명 학생들이 부른 《통일의 노래》의 대합창은 온 남남땅으로 메아리쳤다.

법적적인 《한일회담》, 굴욕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기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외세자주와 조국통일의 기운은 더욱 높아졌다.

본사기자 김영진



통일을 불러

우리 민족의 오랜 조국통일운동사의 갈래갈래에는 주역에 남는 통일주체의 많은 시들도 새겨져있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에 몸부림치는 겨레의 한과 세월이 흘러도 더욱 커가는 통일의 열망, 밝아올 조국통일의 새 아침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담은 시들은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진군을 더욱 고무추동하였다. 그 절절한 시들은 그대로 통일을 부르는 우리

겨레의 피라는 웨침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미 많은 작가들이 우리 걸을 떠나갔지만 그들이 심장에 또 러친 시대의 울림은 오늘도 깊은 여운속에 메아리치고있다. 본사전집중에서는 이번호부터 북, 남, 해외의 애국적인 시민들이 쓴 통일주체의 시들을 더듬어 본다.

송정혁

시

《조국통일!》 《조국통일!》

비는 억수로 퍼붓는데 비웃도 안 걸치고 길옆에 늘어서서 우리 행진대를 맞으며 웨치는 그 목소리 《조국통일!》 《조국통일!》 부르며 부르며 쉬어버린 목청들 비물인지 눈물인지 얼굴을 뜨거웁게 운동 적시며 별경게 눈이 부어 민족의 아픔을 더치는 목소리 《조국통일!》 《조국통일!》

45년- 근 반세기를 애라게 불려온 그 목소리 그래도 그래도 그날은 안와서 민족이 피처럼 흘린 눈물의 목소리 잠자리에 누워드 불러보는 통일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르는 통일 마지막 칩상에서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 부르며 부르며 간 통일! 겨레여 이렇게는 더 못살 우리 겨레여 오늘은 그 눈물을 다 놓자 하여

그러면 노아의 홍수도 비길수 없으니 리니 그것을 더뜨려 분계선의 장벽을 밀자 후대들에게 결코 이 고통이 아픔을 넘겨줄수 없는 민족의 량심이며 이날까지 우리 웨치던 그 목소리 무한대한 우주공간도 다 채우고도 남을 그 목소리 이제 는 하나로 모아 더뜨리자 하여

가슴에 붉은 심장이 아니라 차디찬 돌덩이를 박고 사는 통일의 원수들에게 하늘의 벼락을 퍼붓자 아, 비는 억수로 내리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아픔많은 우리 민족이 다 맞으며 비속에 부르며 화답하는 목소리 그날까지 그날까지 부르며 갈 우리 소원 《조국통일!》 《조국통일!》 (1993년 창작)

오영재

공화국의 품에 안겨

어제날의 소년인부가 광복있는 인민배우로

한진섭. 그는 공화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져있는 재능있는 인민배우이다. 수십년전에 창작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서 아버지역을 훌륭하게 형상한 배우가 한진섭이다. 그는 수많은 연극과 예술영화들에 출연하여 개성있고 훌륭한 연기로 늘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하였다.

배우로서 성공의 삶을 산 그가 인생말년에 쓴 회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눈에 뚫어 넣어가는 듯이 잊을수 없다. 평범한 연극배우에 불과한 내 건강을 그로써 넘겨주시며 승용차까지 배려해주시고 나이도 많은데 나 무리 무리하지 말고 고문역 할나 하면서 일하라고 다심하게 이르시던 그이의 정에 넘친 그 목소리가 언제나 내 귀전에 울리고있다. 고향사람들에게 복받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은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는 공화국에서 남다른 특전을 누리는 자기의 행복의 보석을 늘 고향사람들에게 보여주고싶어했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당시)이다. 1914년 5월 16일 가난한 농사꾼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한진섭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가정사정으로 보통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부령초마냥 떠돌아다니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인친함에 소년인부로 들어가 힘겨운 육체노동을 강요당하기도 하였지만 서울의 금강당이라는 활판인쇄소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1935년 여름 좌익서적을 읽었다는 《뢰》로 감옥에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는 그는 당시 3류급의 가설도류랑구단인 금화회에 피신하게 되었다. 한진섭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토스레를 걸친 연약한 등에 무거운 짐책을 걸머지고 류랑하는 구단을 따라다니는 집근근들은 참으로 눈물겨운 고통의 하루하루였다. 적지 않은 기간 잡부로 일하면서 어찌다가 군중역에 출연해본것이 나의 첫 예술활동이었다.》 이렇게 무대와 인연을 맺은 그는 여러 연극들에 출연하여 배우로서의 남다른 기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라없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시시각각으로 걸쳐드는 어려운 생활난과 위협으로 그는 승진에서 배정으로서, 베이징에서 심양으로, 심양에서 평양과 인천으로 변성명을 하고 숨어다니는 방랑객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울어도 땅을 쳐도 자기 몸을 따듯이 감싸줄 집이 없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귀환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렸다. 그는 항일빨치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설적영웅이 되었다. 주체37(1948)년 3월 연극 《백두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은 평가의 교시를 하시었을 때



한진섭선생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심정으로 새로운 구단인 동방을 조직하고 애능들의 탄압속에서도 연극활동을 계속 벌여왔다. 해방이 되자 만주방을 떠나 돌며 인정세태적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같은 작품들을 인민들앞에 펼치던 동방의 연극인들은 대담하게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연극 《조선빨치산》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는 그의 창조활동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서 이것이 연고가 되어 1946년 5월에 조직된 예술단체인 중앙예술공작단(오늘의 국립연극단의 전신)으로 조동되게 되었다.

한진섭은 이때부터 참다운 예술, 가장 인민적인 연극예술창조의 길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었다.

주체37(1948)년 3월 연극 《백두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은 평가의 교시를 하시었을 때

그는 연극예술의 발전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였다는 긍지로 가슴이 설레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도 그후 한진섭이 출연한 작품들인 《봉화》, 《춘향전》, 《산사람들》을 보시고 또다시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고 가려져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극 《관람사람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작품이 이룩한 성과와 결함을 지적해주시면서 전형적인것을 보여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렇듯 한진섭은 아버지수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속에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명배우로 성장할수 있었다. 해방이 되자 만주방을 떠나 돌며 인정세태적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같은 작품들을 인민들앞에 펼치던 동방의 연극인들은 대담하게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연극 《조선빨치산》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는 그의 창조활동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서 이것이 연고가 되어 1946년 5월에 조직된 예술단체인 중앙예술공작단(오늘의 국립연극단의 전신)으로 조동되게 되었다.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가 공연의 막을 열게 되자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뵈옵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로 극장은 매일 초만원이 이루곤 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직접 만나 뵈고 가르치심을 받는 최상의 영광과 특전을 누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8(1969)년 5월 30일

이 연극을 보시고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연극이 385고지전투를 위주조한 생활을 반영하면서도 아주 폭이 넓게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형상이 보다 더 완벽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잘못된 세부들을 바로 잡아주시었고 385고지전투에서 늑이나 비명을 지르는 침략자들의 물품을 사살기 대로 진실하게 보여줄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한진섭은 자신이 받아안은 무거운 영광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진섭의 연기형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최대의 믿음을 주신것은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지도하여 주시게 된 주제57(1968)년 1월 3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보시고 5형제의 아

버지역을 맡은 한진섭이 연기를 잘한다고, 형상이 우수하고 진실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연기는 완전무결하다고 말할수 있다는 과분한 치하의 교시를 주시었다. 그의 교시는 또한 지방사회 공연중인 한진섭을 볼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를 각색한 예술영화 《꽃피는 처녀》창조사업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비행기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나라없던 시절 막벌이창출으로 불리우며 방황하던 한진섭은 이렇게 연극무대는 물론 영화무대를 통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믿음과 보살핌을 받는 행복의 배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힘겨움도 피곤함도 몰랐다.

평범한 연극배우에게 들려지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국립연극단 한진섭동무가 80동생일을 두 달 앞두고 숨을 거두었다는 데 참 아깝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가 남쪽에서 소년로동을 하다가 류랑하여 연극활동을 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는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연극예술창조사업에 전념하면서 자기의 재능으로 변함없이 자기만의 명도자리를 따를 때에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럽다는것이

기어한 연극예술의 원로였다고 뜨거운 사랑을 담아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한진섭동무는 내가 영화혁명을 할 때에도 큰 몫을 담당수행했고 자기의 예술적재능으로 변함없이 당을 따라온 관록있는 인민배우였습니더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떠나간 배우에게 못다준 사랑이 있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의 장의를 잘 하도록 하시고 아버지수령님과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그의 명구를 신미리에국립사물에 안치하도록 해주시었다.

이분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 대한 부고를 여러 신문과 방송들에 내고 남조선에 도 널리 알려진 연극배우인 것만큼 대외출판물에도 내려 그가 당의 품속에서 수령님의 따라 변함없이 연극혁명의 길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운 관록있는 연극배우였다는것을 크게 소개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연극배우 한진섭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훨씬 넘은 주제98(2009)년 6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연극작품을 보여주신 한진섭동무가 연기를 잘했다고 뜨겁게 추억해주시었다. 그리고 주제99(2010)년 4월 26일 경희극 《산울림》을 보시고서는 한진섭, 리단동무들이 보았더라면 몹시 기뻐했을거라고 그를 또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연극배우 한진섭의 긍지높은 삶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운명은 참다운 인민의 명도자리를 따를 때에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럽다는것이

본사기자

조선예술영화 《민족의 대양》의 한 장면